

데이브 매튜슨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4, 요한계시록 1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Dave Mathewson 박사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의 강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역사적 틀과 문학적 틀을 제공했으므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여 책 자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방식과 우리가 따를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각 섹션을 그 맥락에서 전반적인 기능, 비전의 전반적인 의미 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섹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비추어 세부 사항, 일부 세부 언어, 비전, 상징을 검토하고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주석서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각 섹션의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을 탐색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실제로 1장과 우리가 이미 본 처음 8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하는 이것은 일종의 서간서 부분입니다. 서신이나
서신으로서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록 그것이 확장되어 바울의 서신 중
하나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그의
소개에서. 그리고 1장 9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환상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책의 성격과 성격에 대한 소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거의 알려줍니다. 또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선택하고 전개할 몇 가지 주요 아이디어와 주요 주제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1장, 9장부터 20장까지, 1장의 나머지 부분은 2장과 3장에서 더욱 발전할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한에게 위임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환상입니다. 또 다른 점은 두 번째 부분의 9절부터 20절까지가 요한의 계시와 그가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에게 전할 메시지에 대한 정당성이나 확실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꽤 예언적인 소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1장에서 그것이 구약의 일부 예언 문헌에서 발견되는 예언적 부르심 이야기와 정확히 똑같다는 많은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위임입니다. 요한은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 말씀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과 4장부터 20장까지에 대한 인증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비전을 가장 높임을 받은 자에게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에게 위임하십니다.

1장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요한이 특히 구약성서, 특히 다니엘과 같은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언어와 이미지를 함께 엮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 7장은 1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환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들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책의 성격, 책의 종류,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나머지 책과 종류에서 전개될 몇 가지 주요 주제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계시록은 자신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거나 요한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묵시록으로 식별함으로써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으므로 나는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apocalypse라는 제목이나 apocalypse라는 단어가 있거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를 Revelation로 번역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제목이나 apocalypse라는 단어는 아직 문학이나 문학 유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장르.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일을 계시로 분류함으로써 우리가 이 책을 다른 계시 본문, 신성한 계시를 제공하는 다른 본문, 특히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의 뜻의 맥락 내에서 읽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드러나고, 드러나고,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본질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책의 계시 또는 제목과 같은 용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발견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번역했는데, 이는 다소 모호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내용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행하시는 분인가?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싶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내용이지만, 계시의 주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다시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를 알리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계시의 사슬이나 의사소통의 사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천사, 종들, 요한에게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용이 아니라 주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히 1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이상을 드러냅니다.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 등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초점은 예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내용, 즉 계시된 내용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계시이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대리인이십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서론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증거라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의 천사 곧 그의 종 요한을 보내어 이를 알게 하신지라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라. 여기서는 책의 내용을 증거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이 책에 신뢰성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지금 요한에게 계시된 내용과 정보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 문구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매우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증인 또는 증언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 증인이나 증언이라는 용어를 읽는 것이 유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의 다른 번역본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증인 또는 간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영어 단어 순교자(martyr)를 파생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순교자에 관한 증언 또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찾을 때처럼 이것을 읽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계에서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과 관련하여 순교자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교회 역사의 이 시점에서, 그리고 신약성서가 기록되는 이 시점에서, 그 단어는 아직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목격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일이 종종 목격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목격하는 사람의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중에는 그 증인 때문에 또는 그 증인 앞에서 죽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증인이나 간증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증거나 간증, 요한이 본 것과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주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증거나 간증이 종종 그렇게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격하는 사람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것으로 종종 예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이미 죽은 한 사람, 그의 증인, 신실한 증인 안디바를 알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증언이나 그의 증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을 증거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 자신, 특히 다른 기독교인들도 책 전체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실재에 대해 증인이 되고 간증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결과 종종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서문 부분에 대해 세 번째로 말할 것은 요한이 자신의 일을 예언으로 분명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기록한 것을 마음에 두는 자도 복이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교회들에 전달되었을 방식을 단순히 반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읽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도 한 환경에서 그것이 읽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듣는 사람, 읽는 것과 듣는 것을 지키거나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 축복이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으로서의 계시록은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주로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은 그것을 듣고 실제로 요한의 말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상황에서, 이교 로마 통치와 타협하고 아마도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과 전적인 충성을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는 1세기 독자들은 아마도 그들 중 일부가 박해를 피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 숭배를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관해 알려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지키고, 관찰하고, 순종해야 하는 책입니다.

넷째,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분명히 편지이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 요한은 전형적인 1세기 편지 형식을 사용하여 서신 형식으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서론을 확장하는 방식이 독특하기는 하지만 이를 일곱 개의 특정 교회에 언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나 서아시아 소아시아, 현대의 터키에 있는 일곱 교회, 즉 요한이 명명하고 존재하는 교회로 식별될 수 있는 일곱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제국 통치의 중심지. 이 서문에서 독특한 점은 흥미롭게도 요한이 우리가 책의 나머지 부분을 삼위일체 방식으로 읽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 서한의 인사말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일곱 영으로부터.

아마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일곱 영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일곱은 충만함과 완전함, 완전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계신 성령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또 증인,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에 우리가 이 책을 삼위일체 방식으로 읽기를 원하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모두가 이 책과 계시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성취하는 일에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편지 서문의 두 번째 특징은 4절에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보좌라는 용어는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전개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한 주제나 개념을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진정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참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인류의 운명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과 우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참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보좌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이미 로마 제국의 주장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계시를 가져옵니다.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카이사르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관점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그의 왕좌에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세계의 주권자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인류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주권을 주장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요한이 아마도 이것을 의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1세기 독자라면 누구나 이것이 카이사르에 대한 직접적인 반소였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보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확신하며, 아마도 이 내용은 다른 곳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John이 기호와 이미지에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쓴 이유 중 하나는 정보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경우 정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된 이해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것을 보았거나 도시의 지방 당국 중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읽었다면 그들은 상징과 이미지로 인해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이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메시지를 숨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내 말은, 존이 그들을 위해 글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는 물론이고 일곱 도시 중 한 곳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집어 들고 보좌가 있다는 것을 읽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제기되었을 즉각적인 질문은 또 다른 보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것?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미 존이 매우 반제국주의적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권과 보좌와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자신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불리신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이사르와 연관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John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벌써 보셨나요? 그는 이 책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독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이미 존은 일종의 반제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보좌에 오를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 권위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예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5-8절에서, 5-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더 구체적으로

발견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절인 4절과 5절에서는 요한에게 계시를 제공하는 분이 누구인지, 참으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5-8절은 계속해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 성령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5절 중간쯤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먼저 이 두 구절, 즉 5절과 6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출애굽기의 이미지가 가득한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자신을 위해 백성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해석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를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지 않았습시다. 7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해 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추가될 수 있는 또 다른 원칙은 상징주의의 원칙에 속하지만, 구약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빛과 관련하여 신약을 읽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미 이에 대해 암시했지만, 구약 본문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계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마치 John이 이야기를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되어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따라 그들을 구속하고 해방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출애굽의 언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 새로운 탈출을 통해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과 제사장으로 기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을 가끔 읽으십시오. 특히 1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으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을 로마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미 첫 번째 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요한은 이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그의 왕국을 대표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표할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대표할 사람들의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메시아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왕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는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일종의 기대이자 전초기지로서 그의 통치와 그의 왕국을 대표할 그리스도가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를 달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 되고 그분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기능하도록 창조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왕국이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미 1장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통해 이 일을 할 것이며, 거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왕국과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할 것이지만, 고통과 갈등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미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한 백성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에서의 그분의 임재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가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왕국과 사제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백성을 창조하심으로써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요한이 이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의 독자들이 이것을 다시 반로마 수사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왕국과 제사장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로마의 왕국과 통치에 도전하는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옮기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왕국과 제사장의 공동체를 창조하고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으로 이루어진 그의 새 백성을 통해 성취됩니다. 1장과 7절에서는 미래를 예상합니다.

요한은 다니엘 7장과 스가랴 12장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그도 그러하리라 그럴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들은 기대 속에 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실 날을 기대하며 신실한 증언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7절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대로 역사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과 제사장직은 이에 비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새로운 백성, 즉 그분의 제사장 왕국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신실한 증인이 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8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특별히 언급하는 데 사용된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신께. 8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후 7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이미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절은 이 모든 것을 두 가지 칭호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올마이티(Almighty)라는 제목인데 앞의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다. 첫 번째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로 묘사됩니다.

첫째, 나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면 요한이 미국 알파벳을 사용하기 위해 알파와 오메가 또는 A와 Z를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아마도 구약성서 이사야서에서 발견한 말씀이나 하나님께 적용되는 칭호를 해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목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사야 41장과 4절로 돌아가면 흥미롭게도 이사야 40장의 많은 부분, 특히 40-66절은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구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한이 출애굽기의 언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여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는 그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위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 41장과 4절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처음부터 세대를 부르심으로 이를 행하셨으니 그 중의 처음과 마지막은 여호와니라. 그리고 44, 43절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44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용어와 함께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는 구약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인 이사야 41장 4장과 이사야 44장 6장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마도 역사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 즉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칭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3장, 44장의 문맥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과 44장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함으로써 요한은 다른 신들이 있고 카이사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아우성치는 로마 제국의 맥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와 배타적인 예배와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 다른 모든 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유일성,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의 독점적 권리와 다른 신들과 우상들 앞에서의 주권이 있는 맥락에서 구약성서의 본문을 취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것을 사용하여 로마의 모든 우상에 대해 하나님의 배타적인 주권과 하나님께 속한 배타적인 예배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자, 전에도 계셨던 자, 장차 오시는 이로 묘사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이것은 아마도 구약의 본문,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하고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는 그 공식에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요한이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던 자, 지금 계신 자, 장차 오시는 자라고 묘사할 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공식일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에 서 계신 분이고, 역사의 끝과 그 너머에 서 계시는 분이며, 그 사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주요 창시자로서 역사의 시초에 서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에도 계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피조물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높으신 지위에 대한 칭호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피조물 안에 계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올 사람. 즉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오심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 제목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중요한 주제와 중요한 관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 무엇이든 또는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유일한 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숭배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일곱 교회가 이것에 대해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역사의 시작에 서 계시고, 지금 그의 일곱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 확신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로마제국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충성을 바치고 싶어할까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적대적인 로마 세계에서 충실한 증언을 유지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동기와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1장 1-8장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으며, 중요한 주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재생되며,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진 전적인 충성을 상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9-20절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연설하도록 위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취임식 또는 취임식 환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이 구절들은 요한의 환상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독자들이 그가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요한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은 또한 1장이 실제로 2장과 3장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일종의 또 다른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에 주의를 끌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계시록의 개요를 설명하고 나누는 것을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종류의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섹션이 실제로 이전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이후 내용에 대한 소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섹션이 있는 섹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한 개요를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개요를 가정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1장이 분명히 2장과 3장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고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1장에 소개된 일곱 교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장에 관해 몇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요한은 자신이 독자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곤경에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는 점을 이미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9절의 역설적인 문구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의 형제이자 동반자인 나 요한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의 곤경을 실제로 동일시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씁니다.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제안했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실제로 유배 중이었을 때 밧모가 처형되기보다는 그의 지위에 대해 뭔가를 보여주었고, 그가 더 엘리트였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에서 부자.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통받는 동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몸을 굽히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요한은 독자들 위에 우뚝 선 사람이 아니라 독자들과 동일시하는 사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고통과 왕국을 동일시한다고 말할 때 역설적인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왕국이나 통치가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류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왕국으로 묘사한 정확한 유형의 왕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당시의 악한 제국인 로마제국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으나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추종자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대표하고 그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인내가 수반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은 존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일곱 교회에 말씀을 전할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첫 환상에서 구약성경 본문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구절, 특히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설명,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시현을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의 모든 설명, 설명 문구, 단어는 바로 구약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John이 실제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요한이 경험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구약성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갖 종류의 구약성경 본문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 5장의 성막의 성소, 열왕기상 7장의 성전, 그리고 흥미롭게도 스가랴 장에서 등대를 명확하게 묘사하는 일곱 금 등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장, 스가랴의 환상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한 사람, 요한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에 대한 스가랴의 환상에서 우리는 등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은 구약성서에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이미 1장에서 하늘 성전의 그림인 장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이해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늘 성전에 거하거나 거주하는 매우 제사장적인 용어로 생각합니다. 그 중 일부는 등잔대와 같은 구약의 성전 언어를 사용하여 전달되며, 나중에 요한이 이를 우리를 위해 해석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등대들 가운데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나중에 20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상징에 관해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등대를 일곱 교회로 묘사하거나 식별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등대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장과 3장의 교회의 일곱 메시지에서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당신의 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다.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백성보다 훨씬 높은 어떤 신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 앞에서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겪고 있는지.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일곱 교회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위로와 경고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2장과 3장으로 우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게도 등대들 사이에 예수님의 임재와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의 임재는 교회들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는 위로와 격려를 의미합니다.

타협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심판관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또 다른 이미지인 그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타협하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입에서 검이 나오는 심판관으로 그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으로 더 묘사되는데,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서 바로 따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짐승 같은 네 왕국을 따라가며 사람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짐승과 대조적으로, 이제 당신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있으니, 사람과 같은 모습인데, 그가 지금 받아들이고, 의롭다 함을 받고 왕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다니엘 7장에서 예수를 높임을 받은 인자로 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그의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셨고, 그분의 부활과 승영을 통해 인자는 이미 입증되어 왕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2장과 3장에서 그의 교회들을 검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에 대한 이 묘사 중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14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인자가 머리와 흰 양털 같고 털털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다니엘 7장을 보면 실제로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인자이고, 다른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흰 머리카락과 양털 같고 눈과 같은 흰 머리카락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늘 계신 이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언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언어를 발견하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이 높임을 받은 인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특히 신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예비된 언어로 예수님을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을 추가하면 계시록이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누가 진정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충성을 바치거나 하나님께 속한 보좌 외에 다른 보좌를 갖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앞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만 속한 전적인 예배에 관한 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이 구약의 본문을 적용하고, 다른 모든 신에 비해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 독특한 인물임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17절을 읽어 보면 요한이 인자를 볼 때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는데, 이는 묵시적인 언어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선견자가 환상을 보면 그들은 약해지거나 발에 쓰러지고, 요한은 발에 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의 아들이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글썄, 그건 또 언어야.

여기에 1장 8절의 알파와 오메가와 유사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적용되었던 언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언어를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이 언어의 문맥을 이사야서 41장, 43장, 44장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은 단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의 시작과 끝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 그는 모든 창조물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지만, 우상인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은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분열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혹은 역사의 시작과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곱 교회의 메시지 2장과 3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신실한 증인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은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우주의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며, 더욱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들이 로마나 다른 누구의 손에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적어도 한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충실한 증언으로 인해 죽음의 순간에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사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와 21장, 2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변호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충실한 증언으로 인해 생명이 희생된다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따라 위로의 메시지나 경고의 메시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일곱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고 평가하기 위해 요한을 통해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섹션에서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다른 점은 두 가지 추가 기능입니다.

그 중 하나는 19절에서 발견되는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여러 번 흥미롭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쓰십시오. 이것은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것을 쓰십시오. 본 것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니라 당신의 번역에 따라 당신이 본 것, 지금 있는 것, 곧 일어날 일 또는 앞으로 올 일이라는 이 세 가지 문구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본 것, 지금 있는 것, 앞으로 올 것이 계시록의 특정 부분과 일치하는 계시록 전체의 대략적인 개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1장은 요한이 본 것을 언급하고, 2장과 3장은 요한과 그의 독자들의 현재 상황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은 앞으로 다가올 내용이며,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특정 방식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적 개요로 종종 간주됩니다. 유일한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요약하자면 그것이 효과가 없고 계시록의 본문에서 실제로 발견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 2장과 3장에서, 특히 1장은 1장부터 시작하여 1장과 7절에서 요한은 이미 미래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미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장과 3장에는 교회의 일곱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 시대의 1세기 일곱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는 일곱 교회를 보면 모두 미래의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견디어 이기고, 승리하고 신실한 증언을 유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모든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12장이 과거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4장부터 22장까지의 주기에서 독자의 시대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사건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를 다시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제한된 부분과 관련된 개요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대신, 또 다른 가능성은, 요한이 들은 것을 쓰라고 할 때, 당신이 본 것을 쓰라는 단어가 실제로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본 것을 쓰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책 전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책 전체가 그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 두 요소인 현재와 장차 올 것, 그가 책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쓰십시오. 그것이 책 전체입니다. 그리고 전체 책에는 현재의 내용과 앞으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올 것은 단순히 지금 계신 이, 전에 계셨던 이, 장차 오실 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에도 계셨던 분, 지금 계신 분, 장차 오실 분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는 내용이 책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요점은 계시록에도 과거, 현재, 미래, 특히 책 전체에 걸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구를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전체 문구는 아마도 전체 책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20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이 그런 식으로 의도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20절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John이 그를 위해 뭔가를 해석해 준 두 곳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17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천사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를 대표하거나 상징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실제 인물과 사건을 언급하는 상징을 발견하지만 그 인물과 사건은 문자 그대로 기술되지 않고 은유적으로 기술된다는 사실을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이제 요한은 자신의 책의 성격과 읽는 방법에 관해 우리에게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시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Dave Mathewson 박사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의 강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회입니다.